

##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 히브리서

###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1**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up>2</sup>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sup>3</sup>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며, 하나님과 꼭 같은 본성을 지니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 뒤에,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sup>4</sup>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sup>5</sup>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sup>6</sup>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 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여라.”¶

<sup>7</sup>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바람 § 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sup>8</sup> 그러나 아드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정의의 홀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홀입니다.

<sup>9</sup> 당신께서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 위로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sup>10</sup>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맨 처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 **1:5** 시 2:7.

† **1:5** 삼후 7:14.

‡ **1:6** 맏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첫째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뜻한다.

¶ **1:6** 하나님의...경배하여라 이 대목은 70인역 성경, 그리스어 구약성경, 사해 문서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 신 32장 43절에 나온다.

§ **1:7** 바람 이 말은 ‘영’ 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 **1:7** 시 104:4.

†† **1:9** 시 45:6-7.

- 11 땅과 하늘은 사라지겠으나  
당신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고 말 것입니다.  
12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걸옷처럼 두르르 말아 버리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시며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sup>‡ †</sup>  
13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돌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sup>¶ ¶</sup>  
14 모든 천사는 구원을 상속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아닙니까?

### 우리의 구원은 율법보다 위대하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sup>2</sup>천사들을 시켜 전하신 말씀도 그렇게 큰 구속하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sup>3</sup>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처럼 값진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맨 먼저 알려 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sup>4</sup>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므로써, 그들의 확증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과 같이 되셨다

<sup>5</sup>지금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sup>6</sup>어떤 사람이 성경<sup>§ §</sup>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sup>7</sup>당신께서는  
그들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 주셨고  
<sup>8</sup>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sup>9</sup>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으나, 지금은 영광과 영예의 왕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직접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sup>‡ †</sup> 1:12 시 102:25-27.

<sup>¶ ¶</sup> 1:13 시 110:1.

<sup>§ §</sup> 2:6 성경 구약성경.

\* 2:8 시 8:4-6.

10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아들딸들이 당신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분을 완전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1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널리 알리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sup>†</sup>

13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렵니다.”<sup>‡</sup>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sup>¶</sup>

14 이 자녀들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마를 쳐서 이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15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16 분명히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sup>§</sup>의 자손들입니다. 17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자매인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벗겨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8 그분은 몸소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3**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2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3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4 모든 집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하였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써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데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7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sup>†</sup> 2:12 시 22:22.

<sup>‡</sup> 2:13 사 8:17.

<sup>¶</sup> 2:13 사 8:18.

<sup>§</sup> 2:16 아브라함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3:1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때에  
나에게 반역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

<sup>9</sup> 그곳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사십 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떠보려 하였다.

<sup>10</sup> 그 때문에 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져 언제나 딴 길로만 가고  
내 길은 알지도 못한다.’

<sup>11</sup> 나는 화가 나서 맹세까지 하며 선포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이다.’<sup>† †</sup>

<sup>12</sup>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sup>13</sup> 날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직은 ‘오늘’<sup>‡ ‡</sup>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디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sup>14</sup>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up>15</sup> 성경<sup>¶ ¶</sup>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sup>§ §</sup>

<sup>16</sup>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sup>17</sup>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죄를 짓고, 그 몸이 죽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모두에게 화를 내신 것  
아닙니까? <sup>18</sup>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sup>19</sup>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sup>2</sup>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p>3</sup> 이제 그것을 믿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와

쉼을 얻지 못하리라.’<sup>\*</sup>

<sup>† †</sup> 3:11 시 95:7-11.

<sup>‡ ‡</sup> 3:13 오늘 이 말은 앞의 7절에서 따온 말이다. 그런 일들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sup>¶ ¶</sup> 3:15 성경 구약성경.

<sup>§ §</sup> 3:15 시 95:7-8.

<sup>\*</sup> 4:3 시 95:11.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 쉬셨습니다. <sup>4</sup>성경<sup>†</sup> 어디에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sup>‡</sup> <sup>5</sup>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sup>6</sup>전에 자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sup>7</sup>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성경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디고 고집스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sup>¶</sup>

<sup>8</sup>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sup>9</sup>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sup>§</sup>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로 남아 있습니다. <sup>10</sup>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sup>11</sup>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시다. 아무도 옛날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sup>12</sup>하나님의 말씀<sup>\*\*</sup>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정신과 영혼을 갈라내고, 뼈마디와 뺨골을 갈라내기까지 꿰뚫고 들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자세히 살핍니다. <sup>13</sup>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

<sup>14</sup>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sup>15</sup>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sup>16</sup>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5** 모든 유대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물과 죄를 위한 희생 제물<sup>††</sup>을 바쳐야 합니다. <sup>2</sup>그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걸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sup>3</sup>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sup>†</sup> 4:4 성경 구약성경.

<sup>‡</sup> 4:4 그리고...쉬셨다 창 2:2.

<sup>¶</sup> 4:7 시 95:7-8.

<sup>§</sup> 4:9 일곱째 날의 안식 글자 그대로는 ‘안식일의 안식’ 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시작하신 안식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

<sup>\*\*</sup> 4:12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

<sup>††</sup> 5:1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 유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4어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론 † 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5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 ¶

6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 § § 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7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8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고통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그분은 그렇게 하여 완전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 10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11멜기세덱을 두고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 일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12여러분은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13젓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잘 모릅니다. 14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실천으로 자신들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배우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보다 더 어른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더는 약한 행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여러분은 세례에 관한 교훈과 손을 얹는 것 † 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3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4한번 진리를 배워서 하늘이 주는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5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6이제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7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8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저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 † 5:4 아론 모세의 형으로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 ¶ 5:5 시 2:7.

§ § 5:6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 5:6 시 110:4.

† 5:9 그분께 순종하는...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6:2 손을 얹는 것 대체로 기도와 함께 손을 얹는 이 행위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을 도와 왔고 지금도 도우면서, 그분을 위해 보여 준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11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것과 같은 열성을 끝까지 보여서 여러분의 희망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12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인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1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게 복을 내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sup>¶</sup> 15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16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확증하는 뜻에서 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듭니다. 17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18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거나 맹세를 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피할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19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닦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하늘 장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sup>§</sup>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 제사장 멜기세덱

**7**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2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풀어 보면, 먼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4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5 율법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소득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족에게서 십분의 일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sup>\*\*</sup>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7 복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 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8 제사장들도 십분의 일을 받고 멜기세덱<sup>††</sup>도 십분의 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멜기세덱은 살아 계심이 입증된 분입니다. 9 그렇다면 동족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14 나는…주겠다 창 22:17.

§ 6:20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 7:6 레위 가문 유대 민족의 열두 가문들 가운데 한 가문.

†† 7:8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며 왕(창 14:17-24).



10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가문의 혈통을 이은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와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론 † †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12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13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속하는 분이며, 그 가문 사람으로서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4 우리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문과 관련지어서는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한 바가 없습니다.

### 예수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15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16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7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너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 ¶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8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9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21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맹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주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으니

그 마음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 §

22 이 맹세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3 또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하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25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살아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 흠이 없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꼭 맞는 대제사장입니다. 27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런 다음 백성의

† † 7:11 아론 모세의 형으로, 첫 유대 사람 대제사장.

¶ ¶ 7:17 너는…제사장이다 시 110:4.

§ § 7:21 시 110:4.

\* 7:22 계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계약 또는 언약을 맺으신다. 유대 사람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계약이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더 나은 계약을 맺으셨다.

† 7:26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sup>‡</sup>을 바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그것을 단 한 번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sup>28</sup>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뒤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아드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8** 우리 말의 요점은,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sup>¶</sup>을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오른편<sup>§</sup>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sup>2</sup>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인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 보고 계십니다.

<sup>3</sup>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sup>4</sup> 만일 그분이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sup>5</sup> 그들은 땅 위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보여 준 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sup>\*\*6</sup>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맡아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새 계약<sup>†</sup>도 옛 계약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새 계약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sup>7</sup> 첫번째 계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계약이 생길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sup>8</sup>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sup>‡</sup>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sup>9</sup>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sup>10</sup>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sup>¶</sup>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것이다.

<sup>‡</sup> **7:27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제물을 말한다. 유대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sup>¶</sup> **8:1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

<sup>§</sup> **8:1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sup>\*\*</sup> **8:5 너는 모든…하여라** 출 25:40.

<sup>†</sup> **8:6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보다 나은 계약’ 을 가리킨다.

<sup>‡</sup> **8:8 이스라엘** 먼저 ‘이스라엘’ 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한다 (‘찾아보기’ 에서 ‘이스라엘’ 을 볼 것).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

<sup>¶</sup> **8:10 이스라엘 집안**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듯하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5

13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새 계약’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첫번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 옛 계약 아래에서의 예배

9 첫번째 계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땅에서의 예배 장소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2 그것은 거룩한 장막 †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의 첫번째 방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빵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 ‡ 라고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4 그 안에는 향을 태우는 ¶ 금으로 된  
 제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싹이 돋아난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법조문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5 이 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자비의 자리’ § 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6 장막 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장막의 첫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맡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7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 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8 성령께서는 따로 떨어진  
 이 두 방을 써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첫번째 장막이 아직도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 이것은 모두  
 이 시대를 위한 하나의 보기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희생 제물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0 그것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 곧 사람들의 속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깥 몸에 관한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시어, 당신의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따르게  
 하셨습니다.

§ 5 8:12 렘 31:31-34.

\* 8:13 첫번째 계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유대 백성과 맺으신 계약.

† 9:2 거룩한 장막 또는 ‘성막’.

‡ 9:3 지성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곳.

¶ 9:4 향을 태우는 특별한 나무의 어린잎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바쳤다.

§ 9:5 자비의 자리 십계명이 들어 있는 ‘계약의 궤’ 윗부분에 있는 자리.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이곳에 짐승의 피를 갖다 놓았다.

\*\* 9:7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새 계약 아래에서의 예배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옛날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던 그런 장막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12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13 옛날의 제사장들은 의식상으로 부정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14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씻어 주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양심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들을 씻어 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sup>††</sup>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15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 계약<sup>‡</sup>을 중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첫번째 계약<sup>¶</sup> 아래에서 지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그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 유언의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유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18 그런 까닭으로, 첫번째 계약도 피 흘림이 있기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9 모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을 붉은 양털과 히숨 풀<sup>§§</sup>에 묻혀 율법 책과 모든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20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약의 피입니다.”\* 21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sup>†</sup>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22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죄를 없이한다

23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을 본떠 만든 모형들<sup>‡</sup>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곧 참된 장막을 본떠 만든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25 또한 대제사장<sup>¶</sup>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 † 9:14 영원한 영 아마도 성령을 말하는 듯하다.

‡ 9:15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 ‘계약’ 을 찾아볼 것.

¶ 9:15 첫번째 계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 ‘계약’ 을 찾아볼 것.

§ § 9:19 히숨 풀 또는 ‘우솔초’.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나 물을 뿌릴 때 쓰는 잔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붙은 식물.

\* 9:20 이것은...피입니다 출 24:8.

† 9:21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던 거룩한 천막.

‡ 9:23 하늘의 것들을 본떠 만든 모형들 장막과 제사 의식을 위해 쓰이던 여러 가지 기구를 가리킨다.

¶ 9:25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거듭거듭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sup>26</sup> 만일 그렇게 거듭 바쳐야 한다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 버리려고 시대의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sup>27</sup>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sup>28</sup>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10**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해마다 계속하여 드리는 같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sup>2</sup>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해 줄 수 있었다면, 제물을 해마다 바치는 일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sup>3</sup>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은 해마다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sup>4</sup>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sup>5</sup>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sup>6</sup> 당신은

번제물도 정결제물 <sup>5</sup>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sup>7</sup>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두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sup>\*\*</sup>

<sup>8</sup>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정결제물을 원하시지도, 즐거워하시지도 않으십니다.”<sup>† †</sup>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것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up>9</sup>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sup>‡ ‡</sup>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계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번째 것을 없이하셨습니다. <sup>10</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그렇게 하셨으나, 그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유효합니다.

<sup>11</sup>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서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없이할 수 없습니다. <sup>12</sup>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sup>§</sup> 10:6 정결제물 다른 번역판에서는 ‘속죄제물’ 로 번역함.

<sup>\*\*</sup> 10:7 시 40:6-8.

<sup>† †</sup> 10:8 당신께서는…않으십니다 시 40:6.

<sup>‡ ‡</sup> 10:9 내가…왔습니다 시 40:7.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sup>¶¶</sup>에 앉으셨습니다.’<sup>13</sup>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권세 아래에 두게 될<sup>§§</sup>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sup>14</sup> 그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당신의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sup>15</sup>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up>16</sup> “나 주가 말한다.

그날 뒤로

내가 내 백성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 줄 것이다.”<sup>†</sup>

<sup>17</sup>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들의 죄와

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sup>‡</sup>

<sup>18</sup> 이러한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sup>19</sup>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신 있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sup>20</sup>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sup>21</sup>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sup>22</sup>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서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sup>23</sup>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십시오.

### 서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라

<sup>24</sup>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씁시다.<sup>25</sup>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자주 모입니다. 더구나 그날<sup>¶</sup>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sup>26</sup>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제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sup>27</sup>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끔찍한 일뿐입니다.<sup>28</sup>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정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sup>29</sup> 그러니 하나님의

<sup>¶¶</sup> 10:12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sup>§§</sup> 10:13 권세 아래에 두게 될 글자 그대로는 ‘발등상으로 만들’.

\* 10:16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새롭고 보다 나은 계약. ‘찾아보기’를 참고할 것.

<sup>†</sup> 10:16 램 31:33.

<sup>‡</sup> 10:17 램 31:34.

<sup>¶</sup> 10:25 그날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듯하다.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습니까? <sup>30</sup>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sup>§</sup>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sup>31</sup> 죄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 여러분이 가진 용기와 기쁨을 잃지 말아라

<sup>32</sup>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 낸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sup>33</sup> 여러분은 때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sup>34</sup>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고 더 오래 가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sup>35</sup> 그러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따를 것입니다. <sup>36</sup>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sup>37</sup>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녹장을 부리지 않으실 것이다.

<sup>38</sup>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sup>39</sup>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 믿음

**11**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며,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sup>2</sup> 옛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sup>3</sup>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sup>4</sup>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sup>5</sup>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sup>6</sup>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sup>7</sup>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머지 세상

§ 10:30 원수…갚아 주겠다 신 32:35.

\*\* 10:30 주께서…것이다 시 135:14.

†† 10:38 오시기로…않을 것이다 구약성경 그리스어판 70인 역에서 따온 것이다. 함 2:3-4.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sup>8</sup>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장차 그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sup>9</sup>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가서 약속받은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sup>10</sup> 아브라함은 튼튼한 기초 위에 놓인 도시<sup>‡ †</sup>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sup>11</sup>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sup>12</sup> 그리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sup>13</sup> 이 모든 사람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sup>14</sup>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sup>15</sup> 만일 그들이 떠나 온 나라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리로 돌아갈 길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sup>16</sup>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sup>17</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를 바쳤습니다. <sup>18</sup>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sup>¶ ¶</sup>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바로 그 아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sup>19</sup>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이삭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sup>20</sup>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sup>21</sup>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으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sup>22</sup> 요셉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말하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sup>23</sup>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가 여느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sup>24</sup>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sup>25</sup> 그는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sup>26</sup>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상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up>27</sup> 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왕의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냈습니다. <sup>28</sup>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sup>‡ †</sup> **11:10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sup>¶ ¶</sup> **11:18 이삭을…태어날 것이다** 창 21:12.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아들을 죽이는 자<sup>§</sup>가 이스라엘 백성의 만아들은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sup>29</sup>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건너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sup>30</sup>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나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sup>31</sup>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인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sup>32</sup>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게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일일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sup>33</sup>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sup>34</sup> 그들은 성난 불길을 꺾고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sup>35</sup>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놓아 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sup>36</sup> 어떤 사람들은 놀림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sup>37</sup> 그들은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여 몸이 돌로 갈라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하면서, 양 가족과 염소 가족을 걸치고 떠돌았습니다. <sup>38</sup>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을 헤매기도 하고 동굴과 땅굴 속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sup>39</sup> 이 모든 사람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sup>40</sup>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라야만 믿음의 목표에 이르러 완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12** 이렇게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쉽게 우리를 얻어내는 죄를 떨쳐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끈기 있게 달립니다. <sup>2</sup>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로부터 떼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sup>†</sup>에 앉으셨습니다. <sup>3</sup> 죄인들에게서 그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 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 버리거나 용기를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sup>4</sup> 여러분은 죄와 맞서 애써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었습니다. <sup>5</sup>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고 하신<sup>ㅎ</sup>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잊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 § 11:28 만아들을 죽이는 자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각 집안의 만아들을 죽이게 하셨다(출 12:29-32).

\* 11:37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

† 12:2 오른편 영예와 권위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꾸짖으신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sup>6</sup>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두 꾸짖으신다.”<sup>‡</sup>

<sup>7</sup> 그러니 어려움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참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에게 훈련받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sup>8</sup> 모든 자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sup>9</sup>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훈련하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두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sup>10</sup>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당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잠깐 동안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sup>11</sup> 어떤 훈련이든 받을 때에는 기쁘기보다는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나중에 바른 삶에서 오는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 조심스럽게 살아라

<sup>12</sup>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 늘어진 팔을 들어 올리고, 힘 빠진 무릎을 곳곳이 세우십시오. <sup>13</sup>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뚝거리던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될 것입니다.

<sup>14</sup>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뵈 수 없습니다. <sup>15</sup> 조심하여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sup>16</sup> 여러분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거나, 예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는 한 끼니를 위해 만아들의 상속권을 팔아넘겼습니다. <sup>17</sup>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서는 나중에 이 복을 받고 싶어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빌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sup>18</sup>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어둠과 암흑에 뒤덮이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sup>19</sup>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리는 산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는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sup>20</sup>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sup>¶</sup>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sup>21</sup>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는 “나는 겁이 나서 떨린다.”<sup>§</sup> 라고 하였습니다.<sup>\*\*</sup>

<sup>‡</sup> 12:6 잠 3:11-12.

<sup>¶</sup> 12:20 짐승이라도…것이다” 출 19:12-13.

<sup>§</sup> 12:21 나는…떨린다 신 9:19.

<sup>\*\*</sup> 12:21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겪은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다(출 19장).

22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 산<sup>†</sup>입니다.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sup>‡</sup>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에는 수천 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의 즐거운 모임이 있고, <sup>23</sup>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만아들<sup>¶</sup>들의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sup>24</sup> 그리고 중재자로서 새 계약<sup>§</sup>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였지만, 그분의 피는 죄의 용서를 호소합니다.

<sup>25</sup>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고한 사람을 거역한 죄로 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께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sup>26</sup> 그때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sup>†</sup> <sup>27</sup>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sup>28</sup>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립니다. <sup>29</sup> 우리의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sup>2</sup>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sup>3</sup>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학대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sup>4</sup> 모두들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음<sup>‡</sup>하는 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sup>5</sup>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sup>¶</sup>

<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sup>§</sup>

<sup>7</sup>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sup>8</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sup>†</sup> **12:22 시온 산** 예루살렘이 서 있는 여러 산들 가운데 하나. 시온 산은 때로 예루살렘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sup>‡</sup> **12:22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적인 도시를 말한다.

<sup>¶</sup> **12:23 만아들** 유대 가정에서 만아들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만아들과 같다.

<sup>§</sup> **12:24 새 계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 ‘찾아보기’에서 ‘계약’을 볼 것.

\* **12:24 아벨** 아담과 이브의 아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sup>†</sup> **12:26 나는…것이다** 학 2:6.

<sup>‡</sup> **13:4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sup>¶</sup> **13:5** 신 31:6.

<sup>§</sup> **13:6** 시 118:6.

<sup>9</sup>은갖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음식에 관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칙은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sup>10</sup>우리에게는 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가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sup>11</sup>유대교의 율법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고기는 진† †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 버립니다. <sup>12</sup>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sup>13</sup>그러니 우리도 진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도록 합시다. <sup>14</sup>이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sup>15</sup>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쉬지 말고 드립시다. 그것은 우리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sup>16</sup>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sup>17</sup>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맡은 일을 짐스럽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sup>18</sup>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명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sup>19</sup>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곧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up>20-21</sup>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계약‡ ‡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sup>22</sup>형제자매 여러분, 이 편지가 비록 짧은 글이기는 하나, 내가 쓴 권고의 말만은 부디 받아들여 주십시오. <sup>23</sup>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곧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 함께 가겠습니다.

<sup>24</sup>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sup>25</sup>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13:10 제물** 글자 그대로는 ‘제단’. 여기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가리킨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 † **13:11 진**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천막을 치고 머무르던 곳을 말한다.

‡ ‡ **13:20-21 영원한 계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더 나은 계약.